

경배와 찬양	임재 /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 하나님의 나라/ 허망해 보이나 / 소원	다같이
대표기도		전춘우
성경봉독	눅 3:1-6	유건이
말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성찬	집례: 이정민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응답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 (눅 3:1-14 (봉독: 3:1-6))

1 디베로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 왕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니다. 3 그는 요단 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6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待臨)은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물리적 탄생을 기다리는 것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금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여, 성탄 시즌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눅 1-3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시작까지 일어난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담고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들은 성경에서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에는 목자들도, 마리아도, 베들레헴 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 ‘누가’ 이야기: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럼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일까요? 이에 대해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눅 3:4b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사 40:3 인용) 성경은 굽은 마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잠 11:20, 시 125:5a) 굽은 마음은 모든 것을 꼬아서 보는 편협한 마음입니다. 원가 비뚤게 생각하고 쉽게 오해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재고, 과도하게 따지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자신 뿐 아니라 주변도 참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헌신의 길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재고, 너무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기가 참 힘드십니다.

* 사례: 발런티어 권면, 굽은 길 이야기

우리 마음이 굽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시원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합니다. 꼬불길 한시간 달리지 말고 20분만에 터널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높아지고, 낮아진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눅 3:5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높아진 마음은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건강한 자신감의 수준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를 산과 언덕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런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비하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겸손이 지나쳐서 자신을 과하게 낮추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골짜기 같으면 그 마음을 메꾸어야 합니다. 낮아진 계곡 같은 내 자존감을 세워서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분입니다. 나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비교의식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절대적 가치만 있습니다. 결코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교만과 낮은 자존감의 이유가 됩니다.

셋째, 회개의 마음입니다. 눅 3:7-8b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독사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떠올리게 하는, 죄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생부터 죄의 굴레에 얽매어 있습니다. (시 51:5)

기독교 교부들은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원죄라고, 자신이 지은 죄는 자범죄로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동일한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모두 죄의 굴레에 얽매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죄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큼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이에 더하여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죄된 길을 완전히 떠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상태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내 마음 가운데 굽은 길과 같은 마음은 없나요? 이를 어떻게 곧게 할 수 있을까요?
2. 내 마음은 높은 산과 같나요, 낮은 계곡과 같나요? 이를 어떻게 하면 평탄케 할 수 있을까요?
3. 내 죄를 다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때 마음이 어 떻졌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파송 찬양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현장 예배와 실시간 ZOOM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주부터는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한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세례/입교식

오늘 장년 2부 예배 중에 세례/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 허소정
입교자 : 안혜진, 조은비

성찬식

오늘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현장 동시진행)

목장 모임 방학

12/19~1/9 동안 공식적인 목장모임은 쉽니다.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

-12/19 (주일) 10시 (청년부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본당 좌석이 다 차면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성탄헌금 봉투를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헌금시 “성탄헌금”을 명시바랍니다.

성탄 전야 예배 및 송구영신 예배

-12/24 성탄 전야 예배, 오후 7시 30분
-12/31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

금요기도모임

-이번주 금요일 7시, 청년부 예배실에서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12월 24일과 31일은 청년부 기도모임을 쉽니다.

성탄바구니

-Treaty Oaks (49 가정)에 전달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탄 바구니”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및 전달 : 새가족 목장위원회, 12/20(월) 예정

청년부 2022년 상반기 수련회

-1/16~17, 교회에서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첫주제외)
정기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광현	antoine7190@gmail.com
간사	이찬재	leechanjae@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 psalm@akpc.org
- www.akpc.org
-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